

YPF

January 2011

Classes Begin at PUST

After years of prayer and preparation, classes at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egan for 143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on November 1, 2010. The following is a short testimony from a member of PUST's administrative team.

“Two days before classes began, we gratefully positioned the desks and chairs which had come through Nampo Harbor. The next day, we urgently purchased some chalkboards, chalk, and erasers. With excitement, we wrote class schedules on the portable chalkboard. We were thrilled that both the water system was running and electricity was working before the cafeteria open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we had an “end of class dinner,” and celebrated with the North Korean counterparts and the English faculty team. The day we left, we were glad to be informed that students could shower in their dormitory for the first time. What a blessing it was to finish the semester with 15 faculty members. I am very thankful for the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who dedicated 6 hours of teaching each day despite cultural differences. I am thankful that everything was planned through faith and by grace it was all possible.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After years of prayer and preparation, classes at PUST began for 143 students on November 1, 2010.

평양과기대 첫 수업

지난 수년 간의 준비와 기도로 마침내 평양과기대의 첫 수업이 2010년 11월 1일 143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평양과기대 관계자가 전하는 짧은 간증입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기 이틀 전 남포항을 통해 책걸상을 들여와 교실에 배열하고, 다음 날 급하게 칠판과 분필, 칠판 지우개들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동식 칠판에 전체 수업 시간표를 적을 때의 흥분, 개교 후 약 한 달 만에 평양시 수도관에 연결되어 물이 팔팔 나올 때의 환희, 전기가 들어올 때의 기쁨, 매주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귀한 시간들을 가질 때의 기쁨 등등... 마지막 주에 종강파티를 북측 관계자들과 우리측 영어교수들이 함께 하며 감격적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평양을 떠나는 날엔 학생들이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으로 기뻐했습니다. 헌신된 15명의 교수들로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며 매일 약 6시간의 수업을 감당해 낸 교수님들의 헌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계획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였음을 감사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YUST signs MOU with American Universities

The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as signe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or letters of intent, for the 2&2 Program with Campbellsville University in Kentucky and Concordia University in Portland, Oregon. These agreements will allow YUST students to transfer to the two universities after studying in Yanji, China, for two years, and to graduate with degrees from both YUST and the American institution. YUST also has multiple agreements with institution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Yonsei University at Wonju and Carson-Newman College in Tennessee.

연변과기대, 미국 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 인준

이번 가을 동안 연변과기대는 켄터키주의 캠벨스빌대학,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콘코디아대학과 2+2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하여 연변과기대 학생들은 2년 동안 연변에서 수학한 후에 미국 대학으로 옮겨와 남은 2년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연변과기대와 미국 대학으로부터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연변과기대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다른 몇 개의 대학들과도 연계하여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대학으로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테네시주의 칼슨-뉴만대학 등이 있습니다.



2011 YUST International Symposium

Date: 28 June 2011 – 1 July 2011

Location: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anji, China

Since 2002, the YUST International Symposium has served as a bridge between the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ther universities. This year, the symposium hopes to further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oward a common vision in the new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The symposium will accomplish this by publicizing the work of managers and scholars alike of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content will not only be relevant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Russia, North Korea, and Mongolia, but also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and some European countries. Participants will enjoy cultural programs and a special tour to the famous Changbai Mountain, which is locate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f you are interested or have questions about this symposium, please contact at yustsymposium@yahoo.com, or yustpust@gmail.com.

2011 연변과기대 심포지움 안내

기간: 2011년 6월 28일 - 7월 1일

장소: 중국 연길시 연변과기대

2002년 시작한 이래 많은 분들이 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였으며, 이 심포지움은 연변과기대와 다른 대학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각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업적을 이번 심포지움 발표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협력과 경쟁을 위해 연결고리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거자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범위는 동북아에 제한되지 않고 미주와 유럽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또한 문화탐방 프로그램과 백두산 관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yustsymposium@yahoo.com 로 연락하시거나 저희 [YPF\(yustpust@gmail.com\)](mailto:yustpust@gmail.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YPF is an abbreviation for YUST PUST Foundation, where YUST abbreviates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ST abbreviates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logo of YPF reflects our prayer for God's will and love to flow like a river through YPF.

YPF i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in China, and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in North Korea, through Christian-based spiritual, academic, and financial resources in North America. YPF serves as a hub to connect the two universitie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North America who share common values and vision.

YPF 는 YUST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US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Foundation 의 약자이며, 한글로는 북미 연변·평양 과학기술대학 후원회로 표기합니다. YPF의 로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YPF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북미 연변·평양 과학기술대학 후원회 (YPF)는 중국과 북한에 설립된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를 기독교 정신 하에 신앙적, 학술적,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북미지역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YPF는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지원을 원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이 두 학교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YUST PUST Foundation

Officers | 실무진

Joshua J. Song, President
Sung Chul Bae, Vice President
Heri Lee, Secretary
Richard Park, Treasurer
Day Kim, Director of Strategy & Planning

Board Members | 이사진

Reverend Danny Han
Chin-Kyung Kim
Alicia Mang, Chair
Yoo-Seong Song

312.805.8646
www.yustpust.org
yustpust@gmail.com

YIA Seeks Support for Construction Project

In addition to supporting YUST, PUST, and the NK Children Program, YPF also supports another important organization in Yanji, China. The Yanbian International Academy (YIA), a sister organization of YUST, plays the critical role of educating the children of those who serve in the field. YIA grew out of the Mugunghwa Elementary School for Foreigners founded in Yanji for YUST Staff children in March of 1995. The school struggled and was taught in Korean for two years by mostly mothers with little or no training. The YIA English Division was established and began in its present location in July of 1997. Dr. James Wootton, former headmaster at Korea Christian Academy, became the first headmaster in the fall of 1998 and served through the spring semester of 2000. Lee Nichols became the headmaster in the fall of 2000 and has been in that position until the present.

YIA is now an American school with almost all classes taught in English. It is a standard college prep school with grades K through ten, with plans to add grade eleven in the fall of 2011 and grade twelve in the fall of 2012. YIA teaches a total of 83 students, 52 of whom are children of YUST faculty members, and has an international faculty, with teachers from seven countries.

This winter, YPF is establishing the YIA Construction Fund to help add a second floor over the existing first floor and the present YeEun Korean Kindergarten. A conservative estimate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only is RMB 2,000,000 (approx. \$300,000). In addition, YIA will need some RMB 200,000 (\$30,000) in order to equip the school properly.

YIA presently has one floor with nine half size classrooms, one full size classroom, two small offices, and two bathrooms. YIA also uses four rooms in a place called Peacetown, which is a five-minute walk from school, for a library and for grades 9 and 10. The floor plan for the second floor calls for seven full size classrooms, an auditorium, four smaller classrooms, five rooms which for offices, storage, or small classrooms, and two bathrooms. After construction, YIA should have space for over 200 students.

Construction is set to begin on April 15, 2011 and finish by September 1, 2011. YUST has selected the Building construction firm, and the plan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finalized now. Anyone interested in supporting YIA's construction project may make a tax-deductible contribution to YPF, specifying that the funds are for the YIA Construction Project.

YIA teaches a total of 83 students, 52 of whom are children of YUST faculty members

YIA 건축 프로젝트

저희 YPF는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 그리고 북한 어린이 돕기 이외에도 중국 연변에 위치한 또 다른 중요한 단체인 연변국제학교(YIA)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변국제학교는 연변과기대의 자매 기관으로서 연변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YIA의 전신인 무궁화 외국인 초등학교가 1995년 4월 연변과기대 교직원 자녀들을 위해 연변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대부분 교사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들에 의해 2년 동안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YIA의 영어 교육과정은 1997년 7월에 시작되어 현재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가을 전 한국 기독교 아카데미의 교장이었던 제임스 우튼 박사가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2000년 가을까지 재직하며 학교의 기반을 확립하고 교과과정들을 개발하였습니다. 2000년 가을부터 현재까지는 리 니콜스 선생님이 교장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YIA는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미국식 학교이며,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에는 11학년 과정을 그리고 2012년 가을에는 12학년 과정까지 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83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학생들 중 52명이 연변과기대 교직원 자녀입니다. 그리고 7개의 다른 국적을 가진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저희 YPF는 현재의 1층 건물과 예은 한국 유치원을 2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YIA 건축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약 30만불의 예산이 추정되며 각종 학교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3만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YIA는 1층에 1개의 교실과 9개의 작은 교실, 작은 교무실과 교장실, 그리고 2개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평화타운이라는 곳에 도서실과 9학년 10학년을 위한 4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축을 통하여 2층에 7개의 교실(필요에 따라 2개의 작은 교실로 분리 가능)과 강당, 4개의 작은 교실, 각종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될 5개의 다용도실, 남녀 화장실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2층으로 증축이 완성될 경우 200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2011년 4월15일에 착공하여 9월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변과기대는 건축업자를 선정하였고, 건축의 상세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YIA 건축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공제가 되는 YPF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YIA 건축 프로젝트'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RS Approval for 501(c)3 Status

On September 30, 2010, YPF received an approval letter from the IRS to be a registered not-for-profit organization in the USA. This means that all donations to YPF are tax deductible under the Federal Internal Revenue Code 501(c) 3.

President Kim's Visit to Naperville, IL and Prayer Group

On September 17, 2010, President Chin-Kyung Kim shared his testimony at the Naperville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About 170 people attended from three local churches. Church leaders and pastors had a joint service, and many people learned how God is working through YPF's outreach ministry to YUST, PUST and NK Children. On October 4, a group formed in Naperville, IL, to pray for NK and PUST and will continue to meet monthly.



Empower Conference

YPF vice president Sung Chul Bae attended REAH Empower 2010 to support PUST team and introduce YPF. At the exhibition booth, he shared about YPF's activities and discussed how to get involved in PUST and the NK Children Program. The conference was held for four days, and the theme was "To See, To Care, To Act," focusing on the activity of the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n Arbor Assembly

YPF president Joshua J. Song and Board Member Yoo-Seong Song visited Campus Town Church of Ann Arbor, Michigan on Oct. 19-20. It was a blessed time led by the Lord, and YPF had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 YUST and PUST ministry to the church congregation. Thanks to Rev. Sang Choon Park and Elder Sang Hoon Ahn, who hosted us for the gathering.

IRS 501(c) 3 세금 공제 승인

YPF는 2010년 9월 30일 IRS로부터 세금 공제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방 소득세법에 관한 IRS 코드 501(c) 3 항목에 따른 소득공제 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YPF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앞으로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금은 합법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진경 총장님 네이퍼빌 간증집회와 기도모임

2010년 9월 17일 김진경 총장님을 모시고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 위치한 네이퍼빌 제일 장로교회에서 지역의 3교회가 연합하여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함께 진행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연방과기대와 평양과기대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며, YPF 사역을 소개하고, 지역의 한인교회가 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네이퍼빌 지역에서 매월 북한과 평양과기대를 위한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mpower 집회 참여

YPF 배성철 부회장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진행된 Empower 2010 집회에 참석하여 평양과기대 팀을 지원하고 YPF의 사역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To See, To Care, To Act"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이번 집회는 평양과기대 팀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미시간 앤아버 집회

YPF 송재호 회장과 송유성 이사는 10월19일과 20일 미시간주 앤 아버 대학촌 교회를 방문하여 YPF의 활동과 연방과기대와 평양과기대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대학촌 교회의 박상춘 목사님과 안상훈 장로님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How to Get Involved

Cornerstone Church

Become a cornerstone church for YUST & PUST by organizing and hosting prayer support groups in your church and being involved in activities as the spiritual leader.

Prayer Support

Organize local prayer groups for YUST & PUST. Once a group is organized by individuals or church organizations, YPF can provide support such as updates, guest speakers and attendance.

Financial Support

Since YUST & PUST depend entirely on external funding for operation, consistent financial support is critical. There are mainly five areas for financial support: general operations of YUST and PUST, stipend for faculty and staff, scholarships for students, building fund for PUST, and the North Korean Children Program.

Faculty Support

YUST & PUST are always in need of qualified faculty for for both short-term and long-term assignments. Those with graduate degrees in various fields can apply for teaching opportunities at YUST & PUST.

Missions Trip

Individuals and churches can work closely with YPF to identify missions trip activities and programs at YUST.

YUST PUST Foundation (YPF)

YPF is a non-profit organization run by volunteers in various capacities. You can join YPF and help in task-oriented groups. Below is a list of working groups:

- **PR & Communications:** Publicize YUST and PUST to the public through TV, newspaper, and internet; develop quarterly newsletter to update our support community; provide graphics and writing capabilities on our team.
- **Web Technology:** Develop and maintain the YPF website, manage databases, identify new technologies to operate foundation.
- **Finance:** Develop and maintain the financial system for YPF; monitor all financial activities.
- **Fundraising and conferences:** Organize and lead fundraising activities and events; build close relationships with donors.

Reflections from a Board Member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These words spoken by Jesus before the ascension are very familiar to most believers. He told the apostles that when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them, they would receive power to spread the gospel throughout the world. In particular, He specified Samaria as a place where they should witness. However, this would be challenging, as Jews did not associate with Samaritans (John 4:9). In fact, the thousand-year-old division of Israel left Jews and Samaritans enemies (similar to the division of Korea). It would have been much easier if Jews were told to go through Galilee, where Jesus spent most of his public ministry. But why Samaria? The few times Samaria is mentioned in the four Gospels reveal tension. However, even in John 4:4 it clearly says, “Now [Jesus] had to go through Samaria.”

Samaria highlights the division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of Judah, and also challenges us today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missions. As Christians living in the 21st century, we are called to evangelize to North Korea. However, the differences in Korean culture, politics, economy, and religion born out of the Korean War serve as challenges to the call. Due to the hostility on the peninsula, even Korean Christians have a distorted faith and bitterness toward North Korea, when actually they are called to love and disciple to their enemies. We blame the half-century old division of Korea for the difficult hostility, but Judah's division lasted much longer. Unless we understand this truth, we cannot understand Jesus' compassion in this passage. Why did he tell the apostles to go through Samaria? The simple answer was so they could show love to their enemy. Without this love, the Gospel would be no Gospel at all.

What is the heart of evangelism? It is the Incarnation of Christ himself who came to us when we were his enemies. The end of

Ephesians 2:16 says,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God came to us incarnated while we were sinners, to take away our hostility.

Just like Jesus commanded the apostles, we must go to our Samaria with the gospel. But how can we love North Korea in the midst of today's challenging backdrop? When I am asked this question, indeed it is neither easy nor simple to answer. However, if we do not embrace our enemy with a heart of forgiveness, how could we as Korean American Christians ever talk about evangelism? If we bypass North Korea, we fail and remain as a wounded nation, unable to fulfill evangelism in the truest sense. Thus, we must heed Christ's command to go through Samaria. As a nation divided, North Korean evangelism is our mission in the 21st century. It is not a just a mandate, but a blessing and privilege to heed his voice as he commanded, “You must go through Samaria...”

YPF 단상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4:9), 이 말씀은 너무나 도전적입니다. 사실 천 년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분열은 한국의 분열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인가? 사복음서에 언급된 사마리아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긴장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요한복음 4장4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 선교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분단의 산물로 나타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질감은 이러한 소명에 대한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조차도 한반도에 조성된 적대감들로 인해 북한을 향한 왜곡된 믿음과 아픔의 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대감을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분열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통해 가라고 하셨을까? 분명한 답은 원수를 향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에베소서 2:16 하반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원수된 것을 허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마리아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북한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 온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원수된 자들을 품지 못한다면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북한을 지나쳐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상처받은 민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해 가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분단된 민족으로서 북한의 복음화는 21세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Program Overview

YPF, NAFEC Seoul and YUST are collaboratively supporting and operating this charitable program for children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North Korea. Our program maintains a policy to support children in rural and outlying areas. The Children Program supports children under age 10, who are being housed in homes run by North Korean caretakers. We provide food, milk, medicine and clothing on a monthly basis. Without our support, these basic necessities would be difficult to obtain within the local community. Our YUST administrators go in with the supplies on a regular basis, and see the children regularly.

In addition to supplying these basic necessities, we also support construction projects to improve the childcare facilities.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s, childcare facilities in the rural area are old and dangerous.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ovide a clean and safe environment to young children. This project is also operated by YUST administrators who oversee the whole construction project.

If you would like to support this program in prayers or funds, please contact us at yustpust@gmail.com.

프로그램 개요

북한의 북동부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이 자선 프로그램은 연변 평양 과학기술대학 후원회, 동북아문화교육재단 서울 사무소, 연변과기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변두리와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육아원에 소속된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음식과 우유, 약품과 의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생활용품들을 지역에서 구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연변과기대 당국자들은 정기적으로 지원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발육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육아원 시설의 보수 건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두리 지역 육아원의 시설들은 오래되고 낙후되어 어린이들이 지내기에 위험하며 위생상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도 연변과기대 당국자들의 철저한 관리 하에 건축이 진행되며 향후 시설의 운영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yustpust@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ow to Support

- Please consider supporting a child/ children. \$10 per month will provide each child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 Checks can be made out to YPF
- **Mailing Address:**
YUST PUST Foundation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 **Phone number:** 312.805.8646
- **Email:** yustpust@gmail.com

후원 방법

-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매월 10불의 후원금으로 한 어린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수표의 수취인은 "YPF"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표보내는 주소:
YUST PUST Foundation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 전화번호: 312.805.8646
- 이메일: yustpust@gmail.com



YUST PUST Foundation

P.O. Box 336
Winnetka, Illinois
60093 USA
312.805.8646
yustpust@gmail.com
www.yustpust.org
<Website is now available!>